

신뢰사회 형성을 위한 ‘공유가치창출’(CSV)의 기여가능성

- 지역 학습공동체(Local Learning Community)를 중심으로*

이상훈 (새세대고령화연구소)

I. 들어가는 말

II. 신뢰사회와 고령화사회

1. 신뢰, 호혜성, 고령화
2. 네트워크와 고령화사회
3. 신뢰사회와 학습공동체

III. 교회, 지역 학습공동체, ‘공유가치창출’

1. ‘공유가치창출’을 위한 교회와 지역 학습공동체
2. ‘지역 학습공동체’의 신학윤리적 적합성

IV. 지역 학습공동체 프로그램의 내용과 특징

1. 공동체적 존재로서 ‘자기이해’
2. ‘자기이해’의 실제(實際)로서 자원봉사
3. 일·취업과 변형자산

V.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19.44.11>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B5A07921097)

• ABSTRACT •

Possible Contributions of ‘Creating Shared Value’(CSV) as a Viable
Way to Build a High-Trust Society: Focusing on Local Learning
Community

Lee, Sang Hoon (New Generation Institute of Population Aging)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how local learning community can help to elevate the low-level of trust in our society attributed to deepening population ageing by selectively applying the concept of creating shared value(CSV). To begin with, this research discusses the nature and character of trust and social capital that local learning community is thought to help in the formation of. Middle aged and elderly people, who place the community before any personal matters, engage in active ageing and participate in the community activities in order to increase levels of social trust. Their being active members of the community can be realized by nurturing inner development and mature citizenship in qualified educational programs of local learning community. This point leads us to engage in an important discussion of theological ethical relevance of high trust society and social capital. In connection with this, we will look into the concept of creating shared value(CSV) and how it can be properly applied in our discussion. This study will reveal that local learning community to form and realize CSV can make an important contribution to restoring communityness and elevate the level of trust in the whole community including the local churches. Lastly, this paper will advance the idea that local churches can be regarded as appropriate institutions to create and run local learning community.

Key words: Local Learning Community, CSV(Creating Shared Value), Trust, Society, Missional Church, *Imago Dei*

I. 들어가는 말

‘이익’, ‘효율’, ‘경쟁’이 선택되고 지배하는 공동체는 긴장과 갈등과 상호 불신이 초래될 여지가 많으며 구성원을 넘어 사회적으로 불안, 스트레스, 의심, ‘분노’ 등이 뒤따를 가능성이 높다. 한국 사회는 개인과 단체들에게 경쟁과 효율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며 이익과 성과 논리가 지배한다. 그에 상응하는 ‘치열한’ 삶이 요구되는 우리 사회와 개인들은 관계와 공동체 속에서 불안과 스트레스와 더불어 ‘분노’에 더 많이 노출된다. 근래에 사회적 병리현상으로 주목받는 ‘분노조절장애’는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관계와 공동체에서의 빈번한 갈등과 이에 따른 불안은 사회적으로 낮은 신뢰도의 경향을 초래하며 그 표지로 볼 수 있다. 역으로 공동체의 낮은 신뢰도는 ‘사회적 자본’의 감소를 의미하며 집단들뿐 아니라 구성원들 사이의 갈등과 상호불신으로 이어질 때가 많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현상을 초래하고 반영하는 낮은 상호신뢰와 사회자본 노정의 예들이 사회 각 부문에서 다양하게 발견된다. 사회의 건강과 발전뿐 아니라 구성원들의 행복과 삶의 질은 대인 간 신뢰를 포함하는 높은 사회적 신뢰를 전제하기에 이것의 회복과 제고는 지역 교회를 포함한 우리 사회 전체에 관계된 공동의 과제이며 대처를 위한 방안 마련에 모든 분야들의 참여가 요구된다.¹⁾

지역 공동체에 대한 낮은 관심에 따른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팽배는 사회적 자본의 결여와 구성원 상호 간 신뢰도의 저하 및 관계망의 제한성으로 네트워크가 폐쇄적이고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닫힌 사회를 보여준

1) 우리나라의 신뢰도가 낮은 것에 관해서는 여러 연구들이 있다. 김희삼, “사회자본에 대한 교육의 역할과 정책방향”, KDI 연구보고서(2017. 12.)의 제2장 한국 사회자본의 현황을 참고하라.

다. 그런데 이러한 문화적 양상과 영향은 고령화의 심화에 따라 나이와 특정 연령층(중·고령자들)을 중심으로 직, 간접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한국의 고령화는 고령사회로서 겪는 다양한 위기와 소외 및 분열의 현실과 가능성을 피해가지 않는 듯하다. 사실, 고령화의 도래와 고령 인구가 인식되고 편성되는 연령층과 관련하여 그러한 모습이 우리사회에서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다. 중·고령 세대는 이에 따라 정신·심리적 불안과 사회·경제적 소외를 느끼고 그 결과는 신뢰와 호혜성 및 네트워크 등 사회적 자본의 감소로 이어진다. 또한 후자의 증가가 전자를 가중시키는 악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으며 연령차별로 예시되는 고령화가 중·고령 인구뿐 아니라 타 연령층에게도 함의가 큰 낮은 사회적 신뢰 현상으로 나타난다.

고령화는 연령으로 인한 사회로부터의 단절과 경제적 자원 확보나 그것을 위한 기회의 제한으로 사회경제적 소외와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의 위기를 초래한다. 이러한 리스크에 노출되는 정도에 비례해 중·고령층은 관계와 공동체성의 약화로 저(低)신뢰사회와 사회적 갈등의 원인 및 심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²⁾ 흔히 노인의 네 가지 고통으로 지목되는 질병, 가난, 고독, 역할상실에서도 공동체성의 결여로 규정할 수 있는 요소들이 포함된다. 중·고령층이 대부분을 구성하는 은퇴자들의 관계망의 퇴조는 한국 사회에서 어렵지 않게 예견되는 바다. 공동체 참여와 활동이 저조하고 일과 직장 중심의 삶이 일반적인 한국 사회의 특성상 중·고령 인구의 퇴직은 사회적 교류와 역할의 급격한 축소를 뜻하기에 실제로 느끼는 편차는 더 클 것이다.³⁾ 다시 말해 중·고령자들은 은퇴를 기점으로

2) 박길성, “한국사회의 세대갈등: 연금과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 제12집 1호 (2011), 3-25; 박길성, “한국사회의 갈등지형과 경향,” 『한국사회』 제9집 1호 (2008), 5-29.

3) 송호근, 『그들은 소리내 울지 않는다』(서울: 이와우, 2013), 174-175.

사회적 관계의 약화나 단절로의 중요한 전이와 더불어 신뢰가 형성되고 증가하는 공적 관계보다 신뢰가 전제되고 소비되는 사적 관계 위주로 퇴거한다. 가족과의 사적 관계(family network)나 학연과 친한 직장 동료 혹은 가까운 동호회 사람들과의 관계 등에 의존한 또 다른 사적인 친밀 관계(intimacy network)로 축소되는 사회적 관계의 위축과 소외를 경험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소통과 역할의 약화를 초래하고 의미하는 관계망 즉 사적 관계 위주의 공적 관계망 축소로 인한 관계의 사사화(私事化)는 신뢰사회 구축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사회에서 소외되고 주변화(marginalization)되는 개인과 그룹(가령 중·고령세대)은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뿐 아니라 타인에 대한 신뢰를 갖기 어려우며 양자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사회적 자본 감소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의 감소가 가져오는 낮은 신뢰는 점증하는 고령화의 속도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가속적으로 심화될 수 있고 고령화가 미치는 영향이 전면적인 만큼 우리 사회의 신뢰도를 저해할 수 있다. 이제는 연령과 고령화가 개인의 행복뿐 아니라 공동체의 안정과 조화에 직결되는 사회적 신뢰 형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심화되는 고령화사회에서 지역 공동체의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학습공동체'가 신뢰사회와 지역 공동체의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역의 학습공동체가 형성에 도움을 주는 사회적 자본과 그것의 결과와 요소로서의 신뢰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지역을 기반으로 한 학습공동체가 신뢰사회의 구축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것은 우리가 배우는 존재(*Homo eruditio*)이기 때문이다. 중·고령자들을 포함해 인간은 “자기 스스로 배우고, 사회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자기 삶의 질을 향상

할⁴⁾ 뿐만 아니라 그 원인과 결과로서 사회적 신뢰의 구축에도 노력한다. ‘2등 시민’이 아닌 공동체의 의미 있는 구성원으로 존재하고 활동하기 위해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 등 외적 삶을 규정하고 형성하기 위한 ‘내적 변화’ 함양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신뢰의 기초로서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고 생산적인 역할 및 참여가 이뤄진다.⁵⁾ 따라서 본 논문은 교육과 교육 프로그램이 갖는 신뢰사회와 사회 자본에 대한 정합성에 관해 간략히 살펴볼 것이다. 또한 지역 학습공동체가 필요하고 실행되는 이유와 근거일 뿐 아니라 이러한 논의를 더욱 발전적으로 이끌 수 있는 ‘공유가치 창출’(Creating Shared Value, CSV)에 관해 언급하고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지역을 기반으로 한 학습공동체는 ‘공유가치 창출’의 가능성뿐 아니라 형성자로서 그것의 효과적인 유발을 통해 지역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신뢰사회로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것이다.

II. 신뢰사회와 고령화사회

인간 사회는 개인들과 집단들 간 예측하기 힘든 상호작용이 빈번하고 다양하게 혼재한다. 법과 제도가 갖는 순기능은 그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복잡성을 제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신뢰는 이러한 상호작용의 복잡함으로 인해 개인들과 공동체적 삶에서 실증되기 쉽지 않지만 많이 요구되는 덕목일 것이다. 이 사회적 덕목은 법적이고 제도적 차원에 더해 긴 시간에 걸쳐 실천되어온 윤리적 규범이나 오래 쌓여온 정서와 문화의 축적으로 가능하다. 그런데 로버트 퍼트넘(Robert D. Putnam)에 따르면 신뢰사회는 두 관련된 현상 즉 “호혜성의 규범”(norms of reciprocity)과

4) 구혜정,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대안적 평생교육』(경기도 파주: 한국학술정보(주), 2006), 66.

5) 위의 책, 67.

“시민적 참여의 네트워크”(networks of civic engagement)를 근거로 형성되고 유지된다.⁶⁾ 따라서 상관성 있는 이 두 사회적 현상을 고령화 사회의 특징과 관련해 논의함으로써 인구통계학적 변화와 도전 속 신뢰사회의 가능성을 타진해보기로 한다.

1. 신뢰, 호혜성, 고령화

공동체 발전의 지속에 요구되는 조건은 “법칙과 규정”뿐 아니라 그것을 넘어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고 함께 실천하는 “윤리적 관습”과 상호 간 “도덕적 의무”이다.⁷⁾ 법과 제도는 오늘날 사회가 유지되기에 필수적인 ‘일차적’ 역할과 기능을 한다. 그러나 법률적이고, 외면적인 강제력과 구속력을 갖는 체제나 시스템은 형식과 경직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점에서 의도된 일차적인 역할이나 기능 이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더 한 층의 사회 번영과 복지를 가져오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만큼 전자의 목표 추구는 그 이상을 필요로 한다. 그 이상을 요구하는 인간의 삶은 우리의 의식과 행동에 있어서 규정이나 형식 너머로 나아갈 때 이루어지는 창조적 참여와 기여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 이상의 무엇이 형성되고 성공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명시적이고 외적인 법과 제도와 더불어 내면화된 “전통적 사회 윤리 규범”이 요구될 것이다. 그래서 프랜시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는 공동체의 안정과 발전의 지속은 “법, 계약, 경제적 합리성” 등 명시적이고 측정 가능한 형식과 제도(적인 면)와 더불어 내면화된 관습에 더 한 “신뢰”와 “호혜성” 및 도덕적 의무를 조건으로 인식한다.⁸⁾ 이러한 주장은 저(低) 신뢰 사회에 대한 대처라는 우리의 논의에

6) Rober D. Putnam,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안청시 외 역,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서울: 박영사, 2000), 287.

7) Francis Fukuyama, *Trust*, 구승희 역, 『트러스트』(서울: 한국경제신문사, 1996), 27.

8) 위의 책, 30. “계약(contract)에 “신뢰”가 더해질 때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다고 말하는

타당하게 적용된다. 즉 신뢰사회가 기초가 되고 유발에 기여하는 사회의 성장과 구성원들의 행복은 법과 제도와 함께 그들 간의 “상호 신뢰”라는 사회적 덕목이 보편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이때 이견의 조율과 갈등의 축소가 사회적 합의와 자원하는 협력을 촉진할 뿐 아니라 편협한 이기(利己)보다 공동체 우선시가 중요한 전제로 인식된다.⁹⁾

공동체의 성장과 행복이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한다면 어떤 내용과 과정으로 진행되는가? 우선, 타인이나 다른 구성원 모두에 의해 공유되는 (윤리적)규범에 기초해, “규칙적이고 정직하며 협력적인” 행동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신뢰이다.¹⁰⁾ 신뢰가 높을수록 상호 간 협력, 이견 조율, 갈등 조정의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이러한 공동체 의식의 근거가 되는 규범의 공유는 전체 구성원들에 의한 “윤리적 가치”의 보편적 수용을 가리킨다.¹¹⁾ 다시 말해 빈번한 이견과 갈등과 이기심에 적절히 대처하는 신뢰는 공동체에서 널리 실행되는 ‘가치’로부터 나온다. 가치의 보편적 수용과 실행으로 구성원들 간 그리고 사회적 신뢰(social trust)가 높을 때 소외와 배제의 저지를 위한 노력과 시도에서 효율성 높은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다. 이처럼 모두에 의해 합의된 도덕은 멤버들이 상호 신뢰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¹²⁾

사회적 신뢰의 경우 퍼트넘은 “호혜성의 규범”에서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이런 일이 전개되는 메커니즘은 무엇인가? 사회적 규범은 개인들이 어떤 특정 유형이나 방식으로 선택하고 실천하도록 효과적으로 유도하는 기능이 내재되어 있다. 공동체에서 한 사람의 행동은 다른 사람

데 이는 후에 살펴볼 언약과 계약의 상관성에서 깊이 다뤄질 것이다(Fukuyama, 『트러스트』, 206).

9) 위의 책, 30, 206.

10) 위의 책, 49.

11) 위의 책, 49-50.

12) 위의 책, 50.

에게 모종의 선택이나 실천으로의 “결과(consequences)”를 가져오는 “외부성(externalities)”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하나의 실천이 다수의 타인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패턴이 확장될 때 공동체 구성원들이 일관성 있게 기대되는 방식으로 행동하게 된다. 이것은 행동 통제 권한이 한 행위자로부터 다른 행위자에게 옮겨지는 규범의 작동 원리를 보여준다.¹³⁾ 규범은 이처럼 전염성이 있어 모종의 행동이 타자들에 대한 “유사한 외부성”으로 인해 영향을 미치고 결과를 낳을 때 형성되기에 한 사람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상응하게 선택하고 실천하도록 이끈다.¹⁴⁾

여기서 사회적 신뢰로서의 규범을 특징짓는 중요한 요소인 호혜성에 관해 좀 더 살펴보자. 퍼트남은 “등가(等價) 항목의 동시 교환”을 말하는 “특정한(balanced, specific)” 호혜성이 아니라, 혜택이나 도움에 대한 보답이 곧바로 없더라도 계속 “교환 관계”를 유지할 때 “미래 보상에 대한 상호 기대”를 의미하는 “보편적(generalized)” 호혜성을 강조한다.¹⁵⁾ 보편적 호혜성은 “개별이익(self-interest)”과 “연대성(solidarity)”간의 가능한 갈등을 “조화”시키는 기능을 한다.¹⁶⁾ 이를테면 개인의 이익 추구하고 공동체 모두의 연대 형성이 마찰 없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 호혜성에서의 개인은 “단기적 이타주의(short-term altruism)”와 “장기적 개별이익(long-term self-interest)”의 “조합” 속에서 행동하기 때문이다.¹⁷⁾ 따라서 현재는 아마 “막연하고 불확실하고 계산적이지도 않으면서도” 상대가 ‘미래’에 나를 도와줄 것이라는 기대 하에 ‘지금’ 상대방을 돕는 태도이다.¹⁸⁾ “단기적

13) Putnam,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 288.

14) 위의 책, 288.

15) 위의 책, 289.

16) 위의 책, 289.

17) Michael Taylor, *Community, Anarchy and Liberty*(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 28-29. 위의 책, 289에서 재인용.

18) 위의 책, 289에서 재인용.

으로” 이러한 호혜성은 “자신이 비용을 지불하면서 타인을 이롭게 하는” 이타주의를 실천하지만 결국 전체적으로 “모든 참여자”가 혜택을 얻게 된다.¹⁹⁾

우리 사회의 균열과 마찰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는 이슈 중 하나는 고령화로 말미암은 연령차별(ageism)과 관련해서다. 고령화는 특정 연령 층 즉 중·고령자들의 소외와 배제 현상이 발생하여 타자에 대해서 뿐 아니라 공동체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우리사회의 저(低)신뢰 문제 유발의 중요한 배경으로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귀속시켜야 할 부분이 등장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신뢰사회는 공동체 내 개개 구성원들의 존재감, 상호간의 인정과 역할, 이에 따른 개인의 복지를 넘어 사회적 행복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반대로 이러한 것들의 축소나 상실의 위기는 공동체의 균열과 마찰로 이어지며 신뢰 사회 형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구성원들 간 고(高)신뢰 사회는 (인구통계학적) 칸막이가 견여지고 (연령에 따른) 소외와 배제가 저지되거나 감소될 수 있다. 그런데 공동체 내 시민교육(civic education)을 위한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구성원들의 “충성심, 정직, 미더움(dependability)” 등이 길러지고 증가할 때 신뢰 회복과 고(高)신뢰 사회로의 전이가 가능하다.²⁰⁾ 또한 사회적 신뢰도가 높고, 상호 신뢰가 편만한 경우 높은 자발적 사회성(voluntary sociality)으로 인해 이견과 갈등의 상황에서 협소한 이기주의보다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시하게 된다.²¹⁾ 편협한 이기주의 대신 공동체 우선시 즉 전체의 복지를 위한 선택은 “자발적인 결사체와 공동체 구조”를 건설하고 전제한다.²²⁾

19) 위의 책, 289-290에서 재인용.

20) 위의 책, 288; Fukuyama, 51. 사회적 신뢰를 위한 호혜성 혹은 상호성 규범의 형성에 지역을 기반으로 한 시민 교육 프로그램 즉 지역 학습공동체의 효율적인 운영이 기여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논의가 뒤에서 계속해 이어질 것이다.

21) Fukuyama, 『트러스트』, 54.

이처럼 전체를 우선시하고 협력이 원활하며 신뢰도가 높은 공동체는 구성원들 간 상호 이해와 의견의 일치 노력이 개인적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망 속에 “내재되어(embedded)” 있다.²³⁾

2. 네트워크와 고령화사회

구성원들 간의 공평한 상호성이 의심되지 않는 공동체는 거래와 교환이 계속 이어지며 개인적 접촉이 일정기간에 걸쳐 단절되지 않는 환경과 조건은 신뢰가 형성된다. 지속적인 관계맺음은 구성원 상호 간 신뢰를 낳는 소재와 근거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로버트 퍼트남은 “협력적 행위”가 진작돼 “사회적 효율성”이 제고되기 위해서는 “시민적 참여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져야 한다²⁴⁾ 신뢰사회 형성의 조건으로서 사회적 연결망의 필요성을 간과하지 않는다. 실제로 호혜성의 실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활발한 수평적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사회적 교환의 밀도 높은 네트워크”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²⁵⁾ 그리고 네트워크가 조밀할수록 모두의 이익을 위해 서로 협력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다면 이웃 모임, 합창단, 협동조합, 스포츠클럽, 대중정당 같은 시민적 참여의 네트워크는 어떻게 형성되고 확보될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과 이유로 인해 시민적 참여의 네트워크가 관련자들에게 이익과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가?

우선, 시민적 참여의 네트워크에 동참하지 않거나 여기서 벗어날 경우 지불해야 할 대가가 크고 많은 비용을 치러야하기 때문이다. 교환과 거래에서 ‘기회주의적’ 행위는 현재와 미래의 모든 거래에서 주어질 수 있는

22) 위의 책, 54.

23) Putnam,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 290.

24) 위의 책, 281.

25) 위의 책, 290.

잠재적인 혜택들을 포기해야한다. 시민적 참여의 네트워크는 관계와 거래의 지속과 반복적 행위로 인해 상호연계성이 늘어남으로써 사회적 신뢰의 형성과 증가에 기여한다.²⁶⁾ 또한 시민적 참여의 네트워크는 확고한 호혜성의 규범을 조성한다. 이 관계망 속에서 소통하고 교류하는 이들은 수용할 만한 행위 규범을 만들어 내며, 약속을 지키고 규범을 준수하는 평판을 유지함으로써 가능한 관계의 네트워크로 인해 규범이 강화된다.²⁷⁾

그리고 시민 참여적 네트워크는 구성원들의 평판이 바로 전해지고 정확해지게 하며 소통이 진전되고 상호 믿을만한지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도록 한다. 네트워크의 촉진과 강화로 구성원 서로에 대한 과거와 현재의 정보가 충분히 주어지면 공동체 개인들 사이에 신뢰와 협력이 증가할 수 있다. 신뢰와 관심을 포함한 개인들에 대한 정확한 사실이 상호 간 믿음과 자원(自願)을 일으키는 요인이라면 네트워크는 협력과 신뢰를 유발하고 떠받치는 서로에 대한 정보와 구성원들 상호간의 소통과 교류에 의존한다.²⁸⁾ 그런데 시민적 참여의 네트워크는 특징적으로 사회의 “넓은” 범위를 지향하고 포괄하기에 공동체적 협력이 일어나는데 도움을 준다. 공동체의 유대나 공동의 행동을 위해서는 혈연관계나 절친한 친구관계 같은 제한적일 수 있는 개인 간의 ‘강력한’ 유대가, 면식이나 2차집단의 공동 회원제 같은 개방성향의 ‘약한(느슨한) 유대’보다 효율적이지 못하다.²⁹⁾

고령화사회가 수반할 수 있는 노화와 연령에 따른 소외나 배제 그리고 갈등과 불신을 낳는 연령주의(ageism)나 나이차별(age discrimination)은 제도나 시스템의 변화에 더해 그리고 이들의 영향의 범위 너머에 있는

26) 위의 책, 291.

27) 위의 책, 291-292.

28) 위의 책, 292.

29) 위의 책, 294.

나이 들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필요로 한다. 연령주의나 나이차별에 의한 갈등과 불신은 뿌리 깊은 편견과 의식으로 말미암은 신뢰의 부재로 평가되며 '경험'이나 사회적 실험(social experiment)을 통해 회복이 쉽지 않다.³⁰⁾ 오랜 기간 형성된 이러한 정서와 문화적 성향을 거스르는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 피상적이고 막연한 태도에 지나지 않을 그렇지 않은 경우나 방법 대신 기획적인 프로그램, 즉 지속적인 '학습'에 의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돕는 프로그램의 제안이 요청되는 까닭이다. 지역에 기반을 두고 구성원 모두에게 열려 있는 교육 프로그램은 그 자체가 이미 자발적인 참여와 신뢰를 전제로 하기에 후자의 자기 충족적(self-fulfilling)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기초가 될 수 있다.

3. 신뢰사회와 학습공동체

앞에서 언급했듯이 사회적 신뢰를 일으키는 호혜성(의 규범)은 시민 교육을 통해 일어나고 유지되며 강화될 수 있다. 로버트 퍼트넘은 잘 설계된 학습 프로그램이 협력과 사회적 책임을 기르도록 돕는데 기여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³¹⁾ 반면 최근 교육 프로그램이 '사회적 충원'이나 '사회적 지위이동' 혹은 이를 위한 기능에 치우친 나머지 점차 "지식"과 "경쟁" 위주의 교육이 강조되었다. 이로 인해 교육의 '사회 통합' 의미의 약화나 부재로 '공동체성'이 점차 상실돼 왔으며 그 결과 교육 현장뿐 아니라 공동체에서 인성교육, 윤리의식, 상호신뢰의 감소나 실종으로 나타났다.³²⁾ 공동체와 관계성이 뒷전인 '학교' 중심 교육이 초래하는 지식과 경쟁 위주가 신뢰사회를 형성하고 그것의 형성에 기여하는 시민들을 양성

30) 위의 책, 285.

31) Robert D. Putnam, *Bowling Alone*, 정승현 역, 『나홀로 볼링』(서울: 페이퍼로드, 2009), 405.

32) 오혁진, 『지역공동체와 평생교육』(서울: 집문당, 2014), 201.

하지 못한다. 이와 달리 지역에 기반하고 공동체성이 고려된 교육의 결과는 가치의 공유와 나눔의 실천으로 지역의 성장과 공동체 의식의 제고에 따른 포괄적 호혜성과 시민적 네트워크의 형성과 확장이다.³³⁾ 따라서 자기 충족적인(self-fulfilling) 사회적 신뢰의 구축을 위해 의도적인 과정과 노력이 지속성 있는 프로그램의 형태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이에 지역 학습 프로그램이³⁴⁾ 체계화된 기획으로 도입될 때 신뢰 사회 형성에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지역 기반의 학습 프로그램은 지역 ‘학습공동체’로 인식되며 정의되고 있다. 참여자들로 하여금 “공동체적 소속감”을 갖도록 하며 “개인과 사회가 만나는 교차로”로서 “학습을 통한 사회 변화”를 일으키는 역할을 한다.³⁵⁾

지역의 학습공동체는 참여자들이 개인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하는 학습 효과뿐만 아니라 공동체성에 대한 깊은 고려로 구성원들 간의 신뢰와 사회적 ‘변화’가 추구되고 “통합”이 이뤄지는 공동체의 성장도 일어난다.³⁶⁾ 지역 학습공동체는 학습과 공동체가 한쪽이 지배하거나 다른 쪽이 종속되지 않고 양자가 가장 역동적이며 서로 상승적으로 결합되는 형태다. 개인의 성장과 공동체의 발전이 무관하지 않고 함께 이루어지는 점이 타당하게 반영되는 학습공동체의 정의는 “개인적 친교, 정서적 심오함, 도덕적 헌신, 사회적 응집력, 프로그램의 영속성” 등이 중요하게 포함된다.³⁷⁾ 또한 이러한 “인간적 유대감”은 지적 엄격함이 최대한 추구되는 지역 학습공동체가 나아가는 방향과 다르지 않다. 참여자들 간 돈독한 관계

33) 위의 책, 204, 237-239; Putnam, *Bowling Alone*, 404-405.

34) 나중에 언급되었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은 지역 및 지방자치단체와 교회의 공유가치창출의 가능성으로 규정될 수 있고 공동체의 일부로서 교회가 지역에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적절한 근거가 될 수 있다.

35) 오혁진, 『지역공동체와 평생교육』, 198.

36) 위의 책, 198.

37) 위의 책, 199.

는 철저한 학습을 지향하는 지역 학습공동체의 목표에도 효율적이다.³⁸⁾ 파커 파머(Parker J. Palmer)가 “엄격한 지적 추구”가 진행되는 곳에 “신뢰와 용납”같은 “부드러운 가치”가 항상 같이 온다고 주장하는 이유다.³⁹⁾ 지역 학습공동체 자체가 호혜성과 네트워크가 전제되어야 하고 역으로 이러한 사회적 자원은 지역 학습공동체를 통해 더욱 늘어난다. 그래서 지역 학습공동체는 ‘수평적’ 성격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목표로 삼는다. 이는 호혜성의 실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고도로 수평적인 상호작용이 요구된다는 앞의 사실과 같은 맥락이다.

고령화 이슈는 사회 모든 영역의 문제를 재편집하게 만드는데 ‘사회적 신뢰’의 문제도 예외는 아니다. 100세 인생 및 수명연장과 관련해 흔히 언급되는 노인의 네 가지 고통, 즉 질병, 가난, 고독, 역할상실에서도 드러나듯이 고령화는 소외와 배제의 가능성을 유발하며 이는 중·고령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사회 인구 전체의 신뢰도에 중대한 변수가 된다(아마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시 말해, 억제하거나 안내하는 장치와 인식의 전환이 없으면 이들을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순차적으로 사회경제적 이류시민으로 전락하게 만드는 경향성과 문화가 형성될 수 있다. 호혜성의 규범과 시민적 참여 네트워크 등의 사회적 자원에 주목하는 지역에서 한 교육을 통해 변화와 대안을 위한 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 이러한 교육의 지향점은 소외나 배제(가령 나이와 편견에 따른)를 넘어서 각자가 “상호존중의 힘”과 정서적 성취감을 누리며 공동체 의식 속에서 전체의 “결속력과 생산성” 강화 기여하며 “책임적인” 구성원으로서 경제활동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인정돼, 차별 없이 공동체의 과제에 “능동적으

38) 위의 책, 199.

39) Parker J. Palmer, *To Know as We Are Known*, 이종태역,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서울: IVP, 2014), 189.

로 참여”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⁴⁰⁾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공동체에 참여 하려는 의지를 갖게 하고 동기부여를 제공하도록 의도되고 운영되는 학습공동체는 역으로 공동체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네트워크로 더욱 활성화된다.

모든 인간이 교육을 통한 성장이 요구된다면 전 연령층에게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수명연장은 모든 해당 세대들을 위한 광범위한 학습의 연장이 이뤄져야 함을 의미한다. 수명연장과 ‘100세 인생’(100-year life)의 등장이라는 인구통계학적 변화는 ‘나이’와 ‘노화’ 및 ‘생애주기’에 대한 이해에 혼란과 갈등을 야기할 뿐 아니라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으나 앞으로 급격히 늘어날 중·고령세대와 다른 연령층의 공유가치의 감소와 상실의 요인이 될 수 있다. 공유가치의 부재는 이견과 마찰의 이유로 작용하기에 수명연장을 경험하고 있는 연령층 뿐 아니라 다른 세대도 같은 이유로 고령화와 100세 생애에 관련된 사실에 대한 교육과 학습이 요구된다.

III. 교회, 지역 학습공동체, ‘공유가치창출’

사회적 신뢰 형성에 요구되는 다양한 자발적 공동체(가령 이웃관계, 신앙공동체, 클럽, 자선단체 등 자발적 사회조직)의 약화와 전자의 감소는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다.⁴¹⁾ 필자는 무엇보다도 지역 학습공동체가 효율적으로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 이를 위해 이웃과 가치를 공유하며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계기와 현장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지역 학습공동체에 관해 살피면서 이것이 지역 교회와 어떤 방식으로 신뢰사회 형성을 위해 협력할 수 있을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40) 구혜정,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대안적 평생교육』, 165-166.

41) Fukuyama, 『트러스트』, 29.

접근은 양자가 공동으로 겪고 관심을 갖는 지역 공동체 전체의 '필요'(needs)를 채우는 과정에서 산출되고 얻게 되는 가치의 문제이므로 '공유가치창출'(Creating Shared Value, CSV) 개념을 우선 설명하고 이것이 위의 사안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다루고자 한다.

1. '공유가치창출'을 위한 교회와 지역 학습공동체

사회적 신뢰의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학습공동체는 지역의 필요와 교회의 교육적 과제가 함께 맞닥뜨리는 문제, 즉 중·고령자들의 활동적 노화나 생산적 참여로 의미 있는 삶과 삶의 질의 제고라는 목표로 수렴될 수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담아내고 실행할 수 있는 틀과 개념이 '공유가치창출'이다. '공유가치창출'은 기업 중심의 자본주의가 초래하는 사회적 책임 실천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시도이다. 기업과 지역 공동체의 역할과 존재방식이 뚜렷이 이원화되는 이전과 달리 양자가 두 면에서 하나가 되는 가능성을 최대화하려 한다. 처음에 기업이 사회와 연결되는 방식은 자선활동(philanthropy)을 통해서였다. 사회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기업 이익의 환원은 바람직하다. 그런데 기업은 "단순히 도움을 주는" 단계를 넘어 사회에 대한 "직접적인 기여" 방안을 모색하였다.⁴²⁾ 이에 따라 "기업 시민"으로서 법적이고 윤리적인 의무를 준수하고 공동체의 발전과 삶의 질에 기여하는 사회적 책임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문제"에 대한 근원적 해결이나 "새로운 가치의 창출"에는 미치지 못한다.⁴³⁾ 이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공유가치창출'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42) Michael Porter et al., DBR(동아비즈니스리뷰) 위임,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가?』(서울: 동아일보사, 2015), 20.

43) 전병준, "공유가치창출의 사회적 배경과 개념," 박홍수 외, 『공유가치창출(CSV)전략』(서울: 박영사, 2014), 8; Michael Porter et al.,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가?』(서울: 동아일보사, 2015), 20. 그리고 관련된 논의를 위해 다음을 보라. 강원돈, 『지구화시대

기업의 경제활동과 일체화”시켜 기업과 지역 공동체가 “공유”할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가치의 총량”을 더 늘리려는 노력이다.⁴⁴⁾ 따라서 사회적 문제나 필요를 기업의 사업 기회로 이해하여 수익창출 활동을 통해 해결하거나 충족시키는 것이다.⁴⁵⁾ 지역 주민의 이익이 기업의 성과와 충돌하지 않고 동시에 실현되며 그 결과 “궁극적인 사회발전”과 진정한 “경제적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⁴⁶⁾ 이렇게 기업과 사회는 별개가 아니라 “연결”되어 “함께 발전”하는 “하나의 공동체”로 공유하는 가치를 새롭게 만들고 확대하는 효과를 거둔다.⁴⁷⁾ 기업이 보다 공적인 면을 띠게 되고 기업의 활동이 보다 공적인 목적에 부합하게 되는 것이다.

기업처럼 교회가 사회의 니즈나 과제 해결에 참여하고 기여해야 한다 면 교회의 교육적 목표와 사역을 위해 지역과의 ‘공유가치창출’이 실천되고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위에 제시된 ‘공유가치창출’의 적용과 시도를 통해 지역의 교회는 공동체 전체의 니즈와 과제 해결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공유가치창출’은 교회가 속한 사회의 공통된 이슈(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갈등으로 사회 신뢰도의 저하)의 대처와 극복(가령 중·고령인구의 ‘활동적 노화’)에 참여하고 실행하는 사역을 통해 신뢰 사회의 형성과 회복에 복무함으로써 이웃 사랑과 공동체의 ‘번성’(flourishing)⁴⁸⁾을 도울 수 있다. ‘공유가치창

의 사회윤리』(서울: 한울아카데미, 2005), 279-300; 신창균, 「CSR과 CSV(Creating Shared Value:공유가치창출)」, 『CG Review』, vol. 66, (2013), 57-66.

44) 나종연 외, “공유가치창출(CSV) 시대의 소비자 연구 제안,” 『소비자학연구』, 제25권 3호 (2014), 141, 144; Michael E. Porter and Mark R. Kramer, “Creating Shared Value,” *Harvard Business Review*, 89, nos. 1-2 (January-February 2011): 62-77.

45) Porter et al.,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가?』, 21-22.

46) 나종연 외, “공유가치창출(CSV) 시대의 소비자 연구 제안,” 『소비자학연구』, 제25권 3호 (2014), 142.

47) 유창조, “사회공헌활동의 진화과정,” 『공유가치창출(CSV)전략』, 75.

48) Miroslav Volf, *A Public Faith*, 김명윤 역, 『광장에 선 기독교』(서울: IVP, 2014), 제4장 “인간의 번영”을 보라.

출' 개념과 실행이 교회의 지역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적합성(relevance)이 있으며 따라서 '공유가치창출과 교회 사역 간에 친화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근거다.

프랜시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는 프로테스탄티즘의 중요한 영향 중 하나로 크리스천들에게 “새로운 공동체에서 결속”을 이뤄낼 수 있는 역량을 높여준 것을 꼽는다.⁴⁹⁾ 기독교의 가치가 사회적 미덕으로 나타날 때 “정직, 믿음, 협동, 타인에 대한 의무감” 등으로 표현되며⁵⁰⁾ 후쿠야마가 지적하듯이 이러한 덕목들은 대학교육이나 직업 훈련 등 종래의 “인적자본에 ‘투자’함으로 길러지지 않고 “공동체의 도덕규범”이 습관화되고 또한 공동체 속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 “충성심, 정직, 미더움(dependability)” 등이 획득되어야 가능하다.⁵¹⁾ 위 내용의 ‘학습’⁵²⁾이 충실한 실천으로 이어지는 교육적 효과는 (흔히 지적되는 것처럼 ‘지금의’) 전형적인 ‘학교교육’이 아니라 ‘학습공동체’의 목적이 의도하는 ‘진정한’ 개인의 성장과 더불어 향상되는 공동체성이다. 신뢰 사회를 가능하게 하는 보편적 호혜성과 시민적 참여의 네트워크가 바람직하게 작동되는 조건이 갖춰진다. 이것은 지역 교회가 지역 학습공동체가 되어 신뢰 사회와 관련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사이며 지역의 필요와 문제 해결(가령, 사회적 신뢰 구축)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음을 가리킨다. 지역 교회는 교인들을 교육적 콘텐츠에 지속적으로 노출시키고 그 결과가 다음 단계로 이어져 선순환 되도록 신뢰 공동체 구축 요건인 서로에 대한 믿음과 선행의 실천이 참여적 네트워크를 형성시킨다. 사실, 지역의 교회는 지역에

49) Francis Fukuyama, *Trust*, 구승회 역, 『트러스트』(서울: 한국경제신문사, 1996), 77.

50) 위의 책, 77.

51) 위의 책, 51.

52) 이것은 지역 교회가 지역 학습공동체로서 갖는 교육적 사명에 속하며 교회가 학습공동체로서 역할을 감당할 때 얻을 수 있는 결과다.

기반 한 신앙공동체이면서 지역의 학습공동체이다. ‘신앙’ 뿐 아니라, 이웃사랑과 책임적 윤리 등 ‘공동체’(의 복지와 번성을 위한 봉사과 섬김) 위주의 체계적이고 ‘의도적인’ 교육에 따른 학습이 이뤄지며 교회의 공동체로서의 구성원들 간 신뢰관계는 이러한 결과를 낳도록 설계된 내용의 학습으로 형성되고 또한 계속된 학습으로 성격화되어졌다. 따라서 지역 교회는 지역의 신앙 ‘공동체’로서 구성원들 간 높은 신뢰에 근거할 뿐 아니라 참여 네트워크를 이루는 지역 학습공동체의 전형이며 지역 공동체에서 (단독으로 혹은 다른 조직들과 협력하여) 지역 전체를 위한 공유가치 창출 목적의 지역 학습공동체를 조직해 운영할 수 있다. 지속적이고 정규적이며 개방된 이러한 지역 공동 프로그램은 고령화로 인한 갈등과 저(低)신뢰 사회로의 전략에 저항하도록 모든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반(反)연령주의적 관점과 규범을 내재화시키고 이를 통해 ‘공동체’ 내에서 공동의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의식과 의지를 형성시킨다. 이러한 학습과 실천을 통한 섬김과 봉사가 자발적 사회성을 실천하게 하고 공동체 구성원들 간 상호 신뢰를 높이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2. ‘지역 학습공동체’의 신학윤리적 적합성

앞에서 언급했지만,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는 근거로서 호혜성 규범의 유지와 강화가 교육을 포함하는 사회화로 이루어진다. 학습공동체 프로그램의 목적과 필요성이 지역 사회와 그 속에서 구별되는 교회의 공유가치로 규정되고 교육 내용이 신뢰 사회를 위한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 복무할 때 가능할 것이다. 지역 학습공동체는 “고립된 개인”이 획득하기 어려운 “상호존중”과 “정서적 성취감”을 관계 속에서 얻도록 도우며, 각자가 지역의 “결속력과 생산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준비시키고 사회적 자본의 “외연”을 지속적으로 넓혀감으로써 개인 간과 사회(각계)에 대한 신뢰의

상승으로 이어져 각 구성원의 성장과 확대된 공동체의 발전을 가져오게 하기 때문이다.⁵³⁾

여기서 각자의 재능이 “우호적인 환경에서 최대한 발휘되도록” 지원하고 격려하는 코이노니아 개념이 적절히 원용된다.⁵⁴⁾ 각자의 다름과 차이가 존중되는 전 구성원들의 다양한 은사의 추구가 격려되고 요구되는 코이노니아는 잠재된 역량과 활동성이 발현되는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교제이다. 어떤 전제에 따른 저지나 배제에 의한 예외 없이 모두의 재능이 개발되고 실천될 뿐 아니라 전체를 위한 새로운 의미와 가치가 부여된다.⁵⁵⁾ 예를 들어 연령이 소외나 갈등의 기제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재교육을 통해 ‘또 다른’ 직업을 갖는 제2의 인생과 소명 등 다양한 삶의 단계와 신앙의 표현을 위한 근거로 인식되고 적용되게 돕는다. 공동체의 결속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구성원의 성장과 지역의 발전이 동시에 일어나는 조건은 자신의 권리보다 타자에 대한 의무를 우선하는 “책임적인 상호성”이 적용될 때 갖춰질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이러한 윤리는 호혜성과 관계망 속에서 서로를 향해 자발적 이타를 실천함으로 ‘의도적으로 취약해지기’를 익히고 선택하는 공동체를 형성한다.⁵⁶⁾ 코이노니아를 반영하는 이러한 실천은 (가령 나이와 노화에 따른)차별을 낳는 이기와 배제 보다 다름의 자산이 만드는 생산적 호혜에 집중함으로 각자의 고유성에 따른 ‘차이’를 전시하고 격려한다.⁵⁷⁾ 시민적 참여의 네트워크와 포괄

53) 구혜정,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대안적 평생교육』, 84.

54) 이상훈, “공공신학적 주체로서의 소명과 코이노니아 관점에서 본 고령화사회,” 『기독교 사회윤리』, 제28집 (2014), 221; Paul Lehmann, *Ethics in a Christian Context* (New York: Harper & Row, 1963), 52.

55) 위의 글, 221.

56) Paul Lehmann, *The Decalogue and a Human Future: The Meaning of the Commandments for Making and Keeping Human Life Human* (Grand Rapids: Eerdmans, 1995), 34-37.

57) 이상훈, “공공신학적 주체로서의 소명과 코이노니아 관점에서 본 고령화사회,”

적 호혜성의 규범이 유발하는 고(高)신뢰 사회는 책임의식과 공동체 이슈에 대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구성원을 육성한다.⁵⁸⁾ 이 점에서 유럽평생학습추진위원회가 학습공동체와 관련해 내린 다음과 같은 정의는 많은 것을 시사한다.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학습공동체는 구성원들을 위한 자발적 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역과 공동체에서 “개인의 성장을 촉진하고, 사회통합을 유지하며, 경제적으로 번영하기 위해 시민 모두의 잠재력을 풍부히 개발”하는 효과가 있다.⁵⁹⁾ 이러한 이해는 ‘학습공동체’의 특성을 명시하는 동시에 중·고령과 노화가 배제와 차별(그리고 그 결과 갈등과 불신)의 이유가 되는 것에 저항함으로써 나이차별로 공동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저(低)신뢰의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위의 의미와 내용으로 이뤄지는 지역에 기반을 둔 학습활동 혹은 지역 학습공동체가 개인 간 믿음과 공동체의 통합을 가져오는 이유는 신뢰 사회를 형성하기 위한 호혜성의 규범과 시민적 참여 네트워크의 사회적 자본 형성이 “충분한 양과 질의 학습을 위한 상호작용”을 전제하고 요구하기 때문이다.⁶⁰⁾ 그리고 이러한 양질의 학습을 위한 상호작용은 구성원들 간의 신뢰와 호혜성뿐 아니라 공유하는 규범과 가치도 포함한다.⁶¹⁾ 이 말은 지역 공동체에 터 하는 정규적이고 지속적인 시행을 통한 학습과정의 구축이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가리킨다. 물론 여기에 “충분한” 내용과 기간 계속되는 교육의 참여가 암시하는 것은 학습이 차별과 배제(의 최소화를 위한 노력)에 타협적이지 않다는

221-222.

58) 오혁진, 『지역공동체와 평생교육』, 362.

59) Norman Longworth, *Making Lifelong Learning Work: Learning Cities for a Learning Century*(London: Croom Helm, 1999), 109. 오혁진, 362에서 재인용.

60) Ian Falk, Sue Kilpatrick Falk, “What is Social Capital? A Study of Interaction in a Rural Community.” *Sociologia Ruralis* 40, 2000, 87-110, 구혜정,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대안적 평생교육』, 47-48에서 재인용.

61) 위의 책.

점과 위에서 언급된 사회적 자본의 내용이 충실히 반영돼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고령화와 해당 연령층들의 배제는 “상호 의존의 형식”대신 “극단적인 독립의 위치”를 차지하려는 태도에서 말미암는 것으로 볼 수 있다.⁶²⁾ 중·고령자들이 공적 영역에서 밀려나 “잉여적 존재”로 전락하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다. 이들에 대한 배제는 “타자성을 유지한 채 상호의존”의 존재됨을 부인하여 “추방이나 동화나 종속화”의 형태 또는 수용하지 않고 “내버려두는 무관심”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⁶³⁾ 반면 코이노니아와 이와 유사하게 지역 학습공동체는 “패권적 중심성” 대신 “중심을 벗어난 중심”을 선택하여, 기꺼이 “자아를 개방”하고 “자신을 내어주며” 타자를 받아들이도록 형성되고 가르친다.⁶⁴⁾ 배제에서 포용으로의 이행은 타자를 위한 관계적, 사회적 ‘공간’이 요구되기에, 자기이해(利害)에 따른 “효과”와 “편리”가 표방되고 “독립된 개체”로서 “보다 개인적”이고 “고립된” 인간이 상정되며 “과업 지향적”이고 “제한된 헌신”이 주입된 계약(contract)은 멀리한다.⁶⁵⁾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 “기여”와 “책임”을 앞세운 배려와 나눔으로 공공의 가치와 이익을 향한 “도덕적 헌신의 관계”이자 “타자의 유동적 정체성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자신의 정체성을 기꺼이 재협상”하는 언약(covenant)을 실천한다.⁶⁶⁾

그렇다면 신뢰사회 구축을 목표로 교회가 단독으로 혹은 지역 공동체와 공동으로 ‘공유가치창출’을 위한 지역 학습공동체의 프로그램은 어떤

62) Miroslav Volf, *Exclusion and Embrace*, 박세혁 역, 『배제와 포용』(서울: IVP, 2012), 101.

63) 위의 책.

64) 위의 책, 107-108, 197-207.

65) 위의 책, 234; 신기형, 『기업윤리: 언약적 해석과 계약적 해석을 중심으로』(서울: 한들, 1998), 20; 신기형, 『기독교윤리개론』(서울: 서울여자대학교출판부, 2003), 170.

66) Miroslav Volf, *Exclusion and Embrace*, 243-246.

내용으로 구성되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가?

IV. 지역 학습공동체 프로그램의 내용과 특징

100세 인생과 수명연장 시대는 ‘교육-일-은퇴’라는 전통적인 3단계 모델이 적절하지 않다. 인간 삶을 떠받치는 의미의 발견과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바람⁶⁷⁾은 학습에 대한 욕구와 변화된 학습의 목적을 드러내고 강화시킨다. 따라서 수명연장 시대에는 과도기를 가지면서 재교육을 통해 ‘또 다른’ 직업을 갖는 4, 5단계의 삶과 준비가 요구된다.⁶⁸⁾ 린다 그라튼(Lynda Gratton)과 앤드루 스콧(Andrew Scott)은 수명연장 시대에 주택, 현금, 예금과 같은 유형자산(tangible assets)이 중요하나 이를 위한 수단 이면서 그 자체가 목적인 무형자산(intangible assets)도 강조한다. 이들은 무형자산에서 기술과 지식의 습득을 말하는 ‘생산자산’(productive asset)도 필요하지만 자기이해(self-knowledge), 다양한 네트워크, 새로운 경험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인 ‘변형자산’(transformational assets)에 주의를 기울인다.⁶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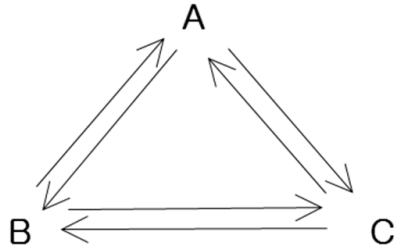
지역 학습공동체의 교육 콘텐츠는 대개 세 가지의 취지나 목표로 진행될 수 있다. 이들은 각각 A. 일·취업 과정, B. 자원봉사 과정, C. 자기이해(A와 B의 준비 단계) 과정이다. 이 세 트랙은 상호 교호, 전제, 지향하는 구조를 형성하여 서로 밀접한 관계 속에서 유기적으로 운영된다. 고령화사회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 세 트랙은 지금까지의 논의나 의미와 유사한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 점에서 차이를 보여준다. 즉, 지역 공동체와 지역의 신앙공동체인 교회가 고령화로 인한 갈등과 사회적 신뢰의 저하

67) 오혁진, 『지역공동체와 평생교육』, 51.

68) Lynda Gratton & Andrew Scott, *The 100 Year Life*, 안세민 역, 『100세 인생』(서울: 클, 2017). 4, 5 단계의 삶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위의 책 5장을 참고하라.

69) 위의 책.

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공유가치창출'로서 '지역 학습공동체'를 통해 어떻게 신뢰사회의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지역 학습공동체의 신학윤리적 의미와 관련성은 무엇인가?



지역 학습공동체 세 트랙의 관계 구조

1. 공동체적 존재로서 '자기이해'

자기이해 트랙은 자기개발과 자아 확장을 통해 관계적이고 공동체적이며 사회적인 존재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이해함으로써 어떤 특정 분야나 주제의 자기 주도적 지정(관심 분야나 주제 찾기)과 이를 심화하기 위한 학습이다. 자아 확장과 자기 개발을 통해 명확해지고 구체화되는 자신에 대한 이해는 상호 관계와 공동체 속에서 어떤 분야나 주제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을지 자기를 준비시키기 위해 학습과 훈련을 통한 가능성과 잠재력의 발견에서 일어난다. 이 과정은 예를 들어, 중·고령자 차별주의의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으로 중·고령자들이 연령과 나이에 따른 배제나 소외에도 불구하고 지역공동체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공적 삶의 지평을 유지하고 확장할 뿐만 아니라 나이와 노화에 대한 편견과 신화(myth)의 수정 및 연령차별에 대한 저항과 반연령주의적 가치관의 재정립으로 나타난다.⁷⁰⁾ 모든 주민을 위한 지역기반의 교육 프로그램의 형성과 유지를 통해 구현되는 가치와 목표는 '직업능력개발'이나 '인적자원개발'에 머물기보다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의미의 이해로 '경

70) Ashton Applewhite, *This Chair Rocks*, 이은진 역, 『나는 에이지즘에 반대한다』 (서울: 시공사, 2016), 특히 6장을 보라. 김동선·모선희, "연령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고령자 고용차별 인식," 『사회과학연구』 제23 (2012), 96, 93-112.

제적 삶' 이전에 '삶의 목적'이 먼저 명확해지게 한다. 이 트랙은 다른 두 트랙, 즉 봉사로 이어지는 준비가 되게 돕거나 특정 분야의 일·직업을 '소명'으로 인식하게 이끈다. 이 과정에서 형성되는 관계 맺음과 공동체성은 신뢰 사회를 형성하기 위한 호혜성과 시민적 참여 네트워크의 확대재생산을 위한 자원봉사와 재능기부로 이어진다.⁷¹⁾ 이러한 학습과정은 중·고령자들을 포함한 모든 연령층이 “미래에 대한 개방성”(openness to the future)의 존재라는 ‘하나님의 형상’ 개념에 호응하여 “고정된 상태”가 아닌 “목적을 가진 운동”으로 계속적인 성장이 권유되고 변화의 삶을 사는 것에 부합한다.⁷²⁾ 그리고 “개방성”은 상호성과 역동적 공동체를 동반하기에 중·고령자들 역시 자신들의 “실현되지 않은 삶”을 규정하고 끊임없이 성취하는 구성원들로서 “본질적으로 관계적”이면서⁷³⁾ 타자들의 “삶에 공동체적으로 참여”하는 존재임을 의미한다.⁷⁴⁾

2. '자기이해'의 실제(實際)로서 자원봉사

지역 학습공동체 프로그램에서 이뤄진 '자기이해'에 따라 구성원들(특히 중·고령자들)이 지역의 현안이나 필요를 충족시키는 자원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공동체에 수용되고 인정받을 때 연령이나 나이가 들이 낳을 수 있는 소외나 배제를 줄이고 갈등과 저(低)신뢰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자기 정체성을 공고히 하거나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변화와 외연 확장의 속성이 발아하고 발현됨으로써 봉사와 나눔(가령 재능기

71) 오혁진, 『지역공동체와 평생교육』, 52.

72) Daniel L. Migliore, *Faith Seeking Understanding*, 신옥수·백충현 역, 『기독교조직신학 개론』(서울: 새물결플러스, 2012), 255.

73) 위의 책, 251.

74) Craig Van Gelder & Dwight J. Zscheile, *The Missional Church in Perspective*, 최동규 역, 『선교적 교회론의 동향과 발전』(서울: CLC, 2015), 206.

부)이 결과로 나타난다. 이 트랙은 위의 자기이해(의 종종 반복되는 시도)로 얻어진 '존재적 가치' 및 타자와의 "상보성"과 "역동적 정체성의 지속적인 재조정"으로 동력과 활동성을 스스로 생산해내도록 함으로써 중·고령자들을 포함한 공동체 모든 구성원들을 신뢰 관계 형성으로 이끌게 하는 '포괄적 호혜성'을 일으킨다.⁷⁵⁾

같은 맥락에서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의 "동반의 정신"(a spirit of companionship)은 이 세상에서 "공감하는 태도로 타인들과 함께" 견도록 이끌며 "교회 밖의 사람들과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한다.⁷⁶⁾ 지역 사회와 교회에서 공히 임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일)에 응답하여 이루어진 책임적 자기이해는 중·고령자들로 하여금 교회 내외의 "광범위한" 하나님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교회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교회를 "넘어" 전체 공동체에도 의미 있는 기여자가 되도록 한다.⁷⁷⁾ 지역 학습공동체에 참여하는 모두에게서 발견되는 이러한 자기 이해와 자기 역할에 대한 인식은 한편으로는(기독교인들 경우) 하나님의 동반자들로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비기독교인들 경우) 적어도 기독교인들이 일으키는 선순환구조 속에서 타인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성(externalities)"의 결과로 나타나는 능동적 공동체 구성원들로서, "공익"의 확충노력에 동참하고 복무함에 있어 요구되는 다양한 "역량"을 키우도록 돕는다. 이들은 '공유가치창출'에 대한 높은 관심에 따라 그것의 실행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의 문제와 주민의 필요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의 중심이 될 수 있다.⁷⁸⁾

공동체적 존재로서의 '자기이해'에 따라 '포괄적 호혜성'이 적용되고 통

75) Volf, 『배제와 포용』, 244.

76) Van Gelder & Zscheile, 『선교적 교회론의 동향과 발전』(서울: CLC, 2015), 267-268.

77) 위의 책, 270.

78) 같은 책.

용되는 자원봉사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루어질 뿐 아니라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확대재생산한다. 역으로 네트워크는 강하거나 약하거나 일과 취업의 전망을 밝히고 계기를 마련하며 또한 신뢰사회의 토대로서 호혜성을 유발한다.⁷⁹⁾

3. 일·취업과 변형자산

앞에서 살펴본 대로 100세 인생과 수명연장 시대에 ‘교육·일·은퇴’의 인생 3단계 모델은 충분하지 않으며 생애주기 이해의 혼란과 신뢰사회 구축 가능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수명연장 시대에는 과도기를 가지면서 재교육을 통해 ‘또 다른’ 직업을 갖는 4, 5단계의 삶을 준비해 살아야 한다.⁸⁰⁾ 린다 그래튼과 앤드루 스콧은 일과 취업을 위해서 기술과 지식의 습득(생산자산)도 필요하지만 ‘자기이해’(self-knowledge), 다양한 네트워크, 새로운 경험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 등 “변형자산”도 중요하다고 말한다.⁸¹⁾ 여기서 공공성을 지향하고 지역 사회 공동의 과제 해결에 대처하려는 ‘자기이해’는 이를 위한 목적의식이 있는 삶을 가리킨다. 이 트랙에서는 따라서 가령 중·고령자들이 노화와 편견으로 사회경제적 “변화와 과도기”를 겪을 때에도 “정체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돕기에 공동체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도록 ‘내적 변화’를 함양하고 마음의 습관을 만드는 학습이 이루어진다.⁸²⁾ 일과 취업의 가능성은 “크고 다양한 네트워크”(변형자산)를 통해 생겨나며 양자가 밀접한 관계 속에 있어 전자의 증대는 후자의 확장

79) 취업과 구직활동에 대한 네트워크의 긍정적 기능을 입증하는 연구가 많다. 예를 들어 김영철, “연줄인가, ‘연결’인가?: 인적 네트워크의 노동시장 효과 분석,” 『한국개발연구』, vol. 34 No. 3(2012), 133-186.

80) Lynda Gratton & Andrew Scott, *The 100 Year Life*, 안세민 역, 『100세 인생』(서울: 클, 2017).

81) 위의 책, 118, 143-153.

82) 위의 책, 149.

을 가져온다. 이러한 변형자산은 (가령 나이와 노화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로 고정관념을 몰아내고 활동적 노화에 역행하는 과거의 습관이나 타성을 벗으려는 노력에서 생겨난다. 무엇보다도 변형자산이 효율적으로 형성되는 '지역 학습공동체'는 프로그램의 참여와 운영에서 스스로 이미 신뢰 사회 가능성의 실례를 보여주고 더 나아가 공동체 전체로 확대된 사회적 신뢰의 모체가 될 수 있다. 그 결과 지역 교회와 지역 공동체는 신뢰사회 회복이란 공동의 과제에 맞닥뜨려 여러 형태의 유효한 협력 속에서 '지역 학습공동체'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 고(高)신뢰사회란 '공유가치창출' 현실화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V. 나가는 말

본 논문은 신뢰사회 형성을 위한 '공유가치창출'(CSV)의 기여가능성에 관해 논의하였으며 특히 지역 교회가 전체 공동체를 위하여 단독으로나 지역과 공동으로 개설하는 교육 프로그램인 '지역 학습공동체'의 예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수명연장과 100세 시대를 특징으로 하는 고령화사회는 나이와 노화를 이유로 다양한 배제와 소외를 겪는 중·고령자들과 이 같은 연령차별에 노출된 그들과의 잠재된(혹은 표출된) 갈등뿐 아니라 전례 없는 '또 다른' 삶을 계획해 살아야하는 타 연령층까지 포함해 공동체 모든 구성원들을 불안과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한다. 인구통계학적 변화로 인한 이러한 불안과 불확실성은 개인뿐 아니라 사회적 삶에도 스며들어 공동체 구성원들 간 갈등과 신뢰 저하뿐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그들의 인식과 태도에도 영향을 미쳐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사회적 신뢰의 저하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반면 신뢰가 높은 사회는 행복과 삶의 질의 제고에 따른 개인의 성장과 공동체의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고령화 시대의 도래와

심화로 중·고령자들이 잉여가 되고 주변화 됨에 따른 사회적 신뢰의 감소는 지역과 교회가 공히 직면한 도전과 과제이며 이의 대처 방안 모색은 ‘공유가치창출’의 실행으로 이뤄질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저하된 사회적 신뢰의 회복과 제고는 중·고령자들이 지역 학습공동체의 지속적이고 정규적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활동적인 노화’(active ageing)의 유효한 실천(예를 들어 봉사, 재능기부, 취업이나 경제적 참여 등)을 위한 ‘의식의 전환’ 혹은 ‘태도 변화’로 적절한 대처의 가능성이 발견된다고 주장하였다. 다시 말해 지역 공동체와 지역 교회가 공동의 이슈인 중·고령자들에 대한 배제, 소외, 차별로 인한 갈등이 야기하는 사회적 신뢰의 저하 문제의 해결을 돕기 위한 ‘공유가치창출’의 노력으로서 효율적인 ‘지역 학습공동체’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공유가치창출의 시도로서 지역 학습공동체는 중·고령자들이 고령화와 연령차별에 따른 잉여나 ‘2등 시민’이 아닌 공동체의 의미 있는 구성원으로 인정되고 활동하기 위해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 등 외적 삶을 규정하고 형성하는 ‘내적 변화’ 함양 프로그램으로 사회적 신뢰의 기초가 되는 공동체 의식과 생산적인 역할 및 참여를 위한 준비를 갖추게 한다.

참고문헌

- 구혜정.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대안적 평생교육』. 경기도 파주: 한국학술정보(주), 2006.
- 김동선 · 모선희. “연령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고령자 고용차별 인식”. 『사회과학연구』. 제23집(2012), 93-112.
- 나종연 외. “공유가치창출(CSV) 시대의 소비자 연구 제안”. 『소비자학연구』. 제25권 3호 (2014), 141-162.
- 박길성. “한국사회의 세대갈등: 연금과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 제12권 1호 (2011), 3-25.
- _____. “한국사회의 갈등지형과 경향”. 『한국사회』 제9권 1호 (2008), 5-29.
- 박홍수 외. 『공유가치창출(CSV)전략』. 서울: 박영사, 2014.
- 송호근. 『나는 시민인가』. 서울: 문학동네, 2015.
- _____. 『그들은 소리내 울지 않는다』. 서울: 이와우, 2013.
- 신기형. 『기독교윤리개론』. 서울: 서울여자대학교출판부, 2003.
- _____. 『기업윤리: 언약적 해석과 계약적 해석을 중심으로』. 서울: 한들, 1998.
- 신창균, 『CSR과 CSV(Creating Shared Value:공유가치 창출)』. 『CG Review』, Vol.66. (2013), 57-66.
- 오혁진. 『지역공동체와 평생교육』. 서울: 집문당, 2014.
- 이상훈. “초고령화시대 사회적 행복에 대한 기독교윤리적 이해.” 『기독교사회윤리』 제32집(2015), 307-339.
- Applewhite, Ashton/이은진 역. 『나는 에이지즘에 반대한다』. 서울: 시공사, 2016.
- Colvin, Geoff/ 신동숙역 . 『인간은 과소평가되었다』. 서울: 한즈미디어, 2016.
- Fukuyama, Francis / 구승희 역. 『트러스트』.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1996.
- Gratton, Lynda & Andrew Scott/ 안세민 역. 『100세 인생』. 서울: 클, 2017.
- Guder, Darrell L./정승현 역. 『선교적 교회』. 인천: 주안대학원대학교 출판부, 2013.

- Lehmann, Paul. *Ethics in a Christian Context*. New York: Harper & Row, 1963.
- _____. *The Decalogue and a Human Future: The Meaning of the Commandments for Making and Keeping Human Life Human*. Grand Rapids: Eerdmans, 1995.
- Migliore, Daniel L./신옥수·백충현 역. 『기독교조직신학개론』. 서울:새물결플러스, 2012.
- Osmer, Richard/ 장신근 역. 『교육목회의 새로운 패러다임』.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 Michael Porter et al. DBR(동아비즈니스리뷰) 엮음.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가?』. 서울: 동아일보사, 2015.
- Palmer, Parker J./ 이종태역.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 서울: IVP, 2014.
- Putnam, Robert D./정승현 역. 『나홀로 불링』. 서울: 페이퍼로드, 2009.
- _____/ 안청시 외 역.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 서울: 박영사, 2000.
- Stackhouse, Max L. *Public Theology and Political Economy: Christian Stewardship in Modern Society*. Lanham, Maryland: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91.
- Stackhouse, Max L./ 이상훈 역. 『글로벌시대의 공공신학: 세계화와 은총』. 서울: 북코리아, 2013.
- Van Gelder, Craig & Dwight J. Zscheile/ 최동규 역. 『선교적 교회론의 동향과 발전』. 서울: CLC, 2015.
- Volf, Miroslav/ 김명윤 역. 『광장에 선 기독교』. 서울: IVP, 2014.
- _____/ 박세혁 역. 『배제와 포용』. 서울: IVP, 2012.

논문투고일: 2019년 6월 29일
심사개시일: 2019년 7월 16일
게재확정일: 2019년 8월 12일

• 국 문 초 록 •

본 논문은 심화되는 고령화사회가 유발하는 사회적 신뢰의 저하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공동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즉 '학습공동체'가 '공유가치창출'을 통해 기여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지역의 학습공동체가 형성에 도움을 주는 사회적 자본과 그것의 결과와 요소로서의 신뢰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위해 교육과 교육 프로그램이 갖는 신뢰사회와 사회 자본에 대한 신학윤리적 관련성에 관해 간략히 살펴볼 것이다. 또한 지역 학습공동체가 필요하고 그것이 실행되는 이유와 근거일 뿐 아니라 이러한 주제를 더욱 발전적으로 이끌 수 있는 '공유가치창출'(CSV)개념에 관해 언급하고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이다. 지역을 기반으로 한 학습공동체는 '공유가치창출'의 가능성뿐 아니라 형성자로서 그것의 효과적인 유발을 통해 지역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신뢰사회로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것이다. 본 논문은 그러므로 지역 신앙공동체로서 교회가 지역 학습공동체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적절한 주체로서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주제어: 지역 학습공동체, 공유가치창출, 신뢰, 사회, 선교적 교회, 언약, 하나님의 형상
